(제44권 46호)

오순절 후 스물세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3RD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11월 1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통일 3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6번 시편 104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19:1-12**	고원희 집사
찬 양 Anthem		"사랑으로"	찬양대
설 교 Sermon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You Will B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예수 피를 힘입어"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못했기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따르려 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으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외면하고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채워졌던 우리의 심령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전 10:31)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개역개정 **출19:5-6**)
"Now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then out of all nations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Although the whole earth is Mine, you will be for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hese are the words you are to speak to the Israelites." (NIV **Exodus19:5-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13 (주일)	11/14 (월)	11/15 (화)	11/16 (수)	11/17 (목)	11/18 (금)	11/19 (토)
본문	대상1,2 히8 암2 시146,147	대상3,4 히9 암3 시148	대상5,6 히10 암4 시149,150	대상7,8 히11 암5 눅1:1-38	대상9,10 히12 암6 눅1:39-80	대상11,12 히13 암7 눅2	대상13,14 약1 암8 눅3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1/16수 오후7:30)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요일3:1-12)
토요 새벽기도회(11/19토 오전6:30)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시101:1-8)

지난 주일(11/6)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22)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출 18:10-23)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을 때, (처음) 모세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주었던 사람이고, (무려)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삶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즉,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고, 40년 넘게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지켜보았던 후견인과 같았던 사람인데, (이러한) 이드로가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옳지 못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로 토브(*lo tov*)"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나오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에 사용된 동일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모세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드로는 모세에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1)하나님을 두려워하며, 2)진실하며, 3)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출18:21-22상)고 조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기준은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란? 1)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2)진실한 사람이며, (또한) 3)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거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동역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딤후2:1) 그리고 "본이 되는 사람"(벧전5:3)으로 맡겨주신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